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참석과 의미

-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월 17일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2월 14~15일에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방문함.¹⁾
 - 룰라 대통령은 AU 정상회의에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회의를 전후하여 일부 회원국과 양자 회담도 개최함.
- 브라질은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역할을 지향하고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은 AU 정상회의를 그간 소원했던 브라질-아프리카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함.
 - 룰라는 2003~2010년에도 대통령을 역임한 바, 당시에 남남협력과 아프리카에 우선순위를 두어 아프리카 27개국을 방문하였고 해외원조의 약 60%를 아프리카에 배정함.²⁾
 - 특히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브라질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상투메 프린시페를 우선협력 대상국으로 삼음.
 -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2019~2022년)은 경제 및 외교적으로 아프리카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아프리카에서 브라질의 입지가 줄어들었고,³⁾ 아프리카에 진출했던 브라질의 석유와 광업 기업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 시기에 투자를 회수함.

그림 1. 포르투갈어 사용국가와 브라질의 우선협력 대상국

자료: <https://brunostein.com/>(검색일:2024.3.5.)

1) Agência Brasil(2024.2.19.), “Lula meets African presidents, speaks of strong Global South”, <https://agenciabrasil.ebc.com.br/en/politica/noticia/2024-02/lula-meets-african-presidents-speaks-strong-global-south> (검색일: 2024.3.5.)

2) African Business(2022.10.31.), “What does Lula's Brazilian victory mean for Africa?”, <https://african.business/2022/10/trade-investment/what-does-lula-victory-mean-for-africa>(검색일:2024.3.5.)

3) ApexBrasil(2023.6.21), “Brasil refaz estratégia para África”, <https://apexbrasil.com.br/pt/conteudo/noticias/brasil-refaz-estrategia-para-africa.html> (검색일: 2024.3.5.)

- 룰라 대통령은 AU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가 빈곤퇴치,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등에서 연대하기를 요청하였고, 개별국가와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채널을 마련함.
- 브라질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BRICS와 G20에 참여하여 빈곤,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기를 요청함.
 - 룰라가 방문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2024년 1월 BRICS에 신규로 가입한 국가임.
 - 개별국과의 회담에서는 아프리카의 농업생산 확대, 브라질 대사관 재개관, 브라질산 농축산물 수출,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함.⁴⁾
 - (케냐) 중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 확대와 브라질 산 농기계 수출
 - (리비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2014년 폐쇄됐던 브라질 대사관을 재개관
 - (이집트) 브라질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수입 시 행정절차 간소화, 양국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
- 룰라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프리카와의 관계 회복에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2024년 G20 의장국으로서 AU가 G20에서 입지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룰라 대통령은 2023년 아프리카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무역·투자진흥청(ApexBrasil)의 수출 크레딧라인을 신규 개설하였고, 앙골라를 방문하여 의료와 식량 등에서 협력 사업을 협의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를 일부 탕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⁵⁾.
 - 앙골라 방문 시 △나병치료를 위한 의료협력,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협력, △소상공인 지원, △수출 진흥 등을 합의함.⁶⁾
 - AU는 2023년 G20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의에는 19개 회원국, EU, AU 대표가 참석할 예정임.
 - 브라질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를 우선시하여, G20의 어젠다를 △기아·빈곤·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으로 제안함.⁷⁾
 -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은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참여를 높이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 World Bank와 IMF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참여 확대, 2) WTO의 중재기능 재개, 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에 개도국을 신규로 포함, 4) 저소득 국가의 외채 해결 등을 제안함.

박미숙

4) LatinNews Daily(2024.2.19.), "BRAZIL: Lula shores up ties with African Union", <https://www.latinnews.com/component/k2/item/100361-brazil-lula-shores-up-ties-with-african-union.html>(검색일: 2024.3.5.)

5) Foreign Policy(2024.2.22.), "Why Lula Visited Africa", <https://foreignpolicy.com/2024/02/23/brazil-lula-g-20-african-union-gaza-israel-ukraine/>(검색일:2024.3.5.)

6) 브라질정부(2023.8.25.), "Brasil e Angola assinam sete acordos de cooperação durante visita de Lula a Luanda", <https://www.gov.br/planalto/pt-br/acompanhe-o-planalto/noticias/2023/08/brasil-e-angola-assinam-sete-acordos-de-cooperacao-durante-visita-de-lula-a-luanda>(검색일:2024.3.5.)

7) G20(2023.12.1.), "A G20 with a Brazilian twist", <https://www.g20.org/en/news/a-g20-with-a-brazilian-twist> (검색일:2024.3.5.)